



이용 안내

3월~5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화·목·금 09:00~18:00
수·토 09:00~21:00
일·공휴일 09:00~19:00

• 관람료: 무료

• 전시해설: 10시·11시·2시·3시 (4회)

• 모바일 웹 서비스: <http://jul.im/N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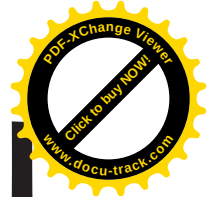
웹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 체험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고대로의 여행”

3월 24일~5월 5일 매주 토요일 10시, 14시 2회 운영,
교육관 제2실기실(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타임캡슐을

Opening the Time Capsule :
Wondrous Expedition to the past

열다

— 색다른
고대 탐험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2012년
3월 20일(화)~
5월 6일(일)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2012년
6월 26일(화)~
8월 26일(일)



‘타임캡슐을 열다’ 전시실 안내도





죽음을
품은

우물 이야기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을 아십니까?

우물은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우물에는 늘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한 마음을 담아 우물을 만들 때 가장 밑바닥에 병이나 항아리 등을 넣어둔다. 때로는 이러한 토기 외에도 소뼈나 말뼈, 복숭아씨앗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신라에서 우물은 시조가 탄생한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우물은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부정함을 씻어주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 확인된 2개의 통일신라 우물에서 다량의 토기와 기와, 나무빗과 두레박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물뼈가 출토되었다. 이 우물은 경주 월성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물 외에 건물지, 도로, 담장 시설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우물 2 출토상태



우물 2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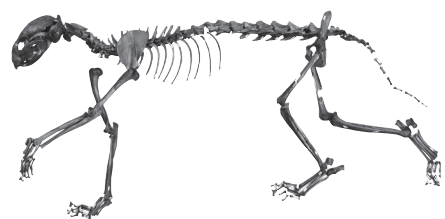
1. 우물 1 안에서 밖으로 쳐다본 모습
2. 우물 1(깊이 약 10m)
3. 우물 1 출토상태

우물 1 출토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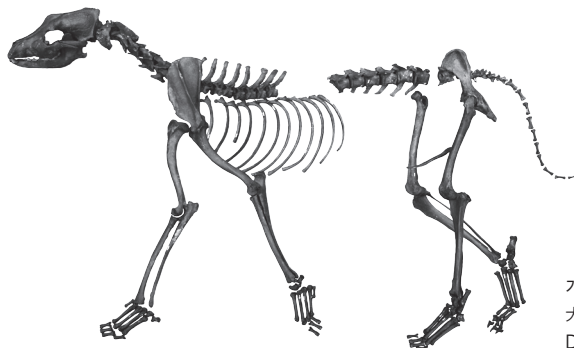


수많은 동물뼈와 아이뼈까지 발견되었다는데...

2개의 우물에서는 개, 고양이를 비롯한 소, 말, 사슴, 멧돼지, 토끼, 두더지, 쥐와 같은 포유류 뿐만 아니라 오리나 까마귀, 꿩, 새매 등 조류, 개구리, 뱀 외에 상어, 잉어, 복어, 대구, 송어 등 총 2,300여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우물 1에서는 어린아이의 뼈도 함께 출토되었다. 우물 2에서는 동물뼈 외에도 다량의 토기와 기와류, 금속그릇, 숟가락, 동곳, 나무빗, 두레박 등 460여점이 출토되어 우물 1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고양이뼈
猫骨
Cat Bones



개뼈
犬骨
Dog Bones

개 머리뼈
犬頭蓋骨
Dog Skull



나무 두레박
木罐
Wooden Water Scoop



바리, 병
鉢, 瓶
Bowl, Bottles



‘南宮之印 남궁지인’이 새겨진 기와
‘南宮之印’銘瓦
Roof-tile with Inscription



아가리를 일부러 떼어낸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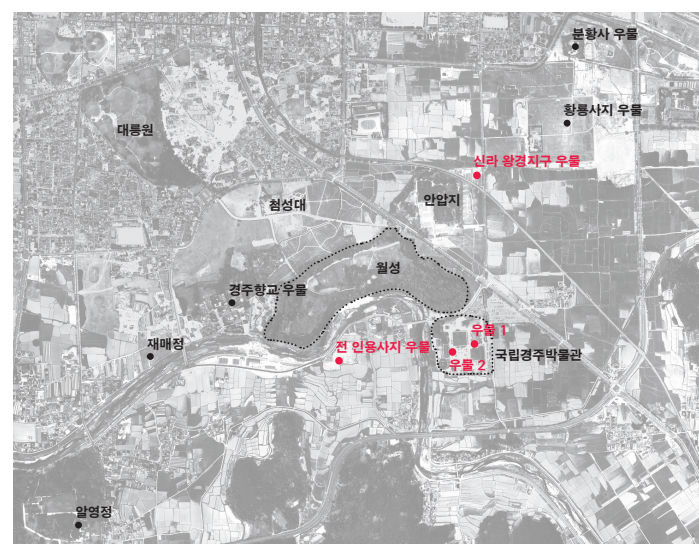
금동그릇, 청동숟가락, 청동뒤꽂이
金銅鉢, 靑銅匙, 靑銅叉
Gilt-bronze Bowl, Bronze Spoon, Bronze Hair Pin

우물, 죽음을 품다...

경주박물관 연결통로 부지 우물 1에서는 어린아이의 뼈를 비롯하여 약 2,200여점의 동물뼈와 토기, 기와, 두레박, 나무빗 등 70여점이 확인되었다. 미술관 부지 우물 2에서는 약 460여점의 토기와 기와, 금속·목제품과 130여점 동물뼈가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신라 왕경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월성 주변에서 확인된 전 인용사지 유적, 신라 왕경유적(안압지 동쪽)의 우물에서 비슷한 예가 확인되었다. 다만 경주박물관 연결통로부지 우물 1에서 어린아이뼈가 확인되는 점이 다르다.

유독 이 우물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경주 월성 주변에서 확인되는 4개의 우물은 거의 8~9세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신라 왕경 내의 우물 제사와 관련된 동물뼈로는 소와 말뼈가 있다. 그러나 월성 주변의 4개의 우물에서 확인된 것은 동물이나 출토품의 종류와 수량이 다른 것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주택의 우물이라기보다 왕실에서 사용했던 중요한 우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실 내부에서는 단순히 식수를 공급받는 우물과 제사를 지내는 특수한 성격의 우물을 구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신라 말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거나, 병의 치유와 부정함을 물리치기 위해 왕실 차원의 대규모 우물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우물은
아이와 동물들의
죽음을 품고...

끝내
우물마저도
죽음을 택했다...

1. 황룡사 우물
2. 경주 향교 우물
3. 분황사 우물
4. 알영정
5. 재매정

신라 왕경지구 우물



전 인용사지 우물



우물에서 어린아이뼈가 발견되다!!!!

경주박물관 연결통로 부지 우물에서는 유일하게 7~10세 가량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뼈가 발견되었다. 우물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 출토층의 상부에서 확인되는 어린아이뼈는 동물뼈와 토기류 등과 얹혀 있는 상태였다.

지증왕 3년(502년)에 순장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다.

무덤이 아닌 우물 속에서 발견된 아이는 누구이며, 왜 우물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했던 것일까?

사고였을까?

귀족이나 왕족의 아이가 실수로 우물에 빠져 죽은 후 건져내어 제사를 지낸 후 다시 우물에 넣고 마지막에 상석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은 아이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굳이 상류층의 아이가 우물에 빠져죽었다고 해서 우물에 다시 넣어 제사를 지냈을까? 특별히 관리되었던 우물에 부정이 났기 때문에 그랬을까?



희생되었을까?

대규모 국가나 왕실 차원의 우물 제사에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희생된 공양물...

아이의 뼈는 동물뼈들과 함께 얹혀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유물과 동물뼈 중에서도 맨 윗부분에서 확인된 점, 그 위에 우물 상석(우물 가장자리 방형 틀)까지 넣고 우물을 폐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풀잎같이 여렸던
아이가

감당해야했던

죽음...

어린아이 뼈
人骨
Children Bones
추정 키 130cm

우물에서는 어느 신에게 소원을 빌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용왕전龍王典에 대사大舍 2명, 사史 2명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용왕龍王’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우물 제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에 용왕이 적혀있던 자료로는 창녕 화왕산성의 연못에서 출토된 인형모양의 목간과, 전 인용사지 유적 우물의 ‘용왕’이 새겨진 목간이 있다.

또한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심용왕辛審龍王’이라고 적혀진 그릇도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물의 제사와 관련된 용왕신은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만 万
본 本
래 來
신 身
중 中
유 有
사 史
□
□
금 今
백 白
용 龍
왕 王
시 時
위 爲
□
내 內

時 時
策 策
施 施
故 故
陽 陽
哉 哉
[]

‘龍王용왕’이 새겨진 목간
‘龍王’銘木簡
Tablet with Inscription
국립경주박물관 우물 2

참고



‘辛審龍王신심용왕’이 새겨진 그릇
‘辛審龍王’銘土器
Pottery with Inscription
안압지 출토



‘龍王용왕’이 새겨진 목간
‘龍王’銘木簡
Tablet with Inscription
전 인용사지 우물

염원을 품은

쇠슬 이야기



어느 이름 모를 절터가 품은 보물단지

창녕 북동부 비슬산지에서 뻗어 나온 진산鎭山, 화왕산.

그 남서쪽 능선에 말흘리 유적이 위치한다. 3개의 건물터 중 1호 건물터의 남서쪽 모서리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가, 왜, 여기에 절에서 사용하던 귀중한 보물들을 묻었을까?

보잘것없는 쇠 조각들로 교묘히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 밑에 보물들을 숨겨놓은 것을 보면 제사나 의례의 목적이 있어 묻어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났던 것일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감추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듯 싶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참된 세상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쇠솥
鐵釜
Iron Cauldron
높이 41.2cm



쇠솥 출토 상태



우리는
이 작은 쇠솥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바람을

함께
담아두었다.....

왜 쇠솥에 부처님의 물건을 넣어두었을까?

작은 구덩이 속에서 확인된 쇠솥에는 갖가지 금동제품들이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겹겹이 채워져 있었다. 또한 쇠솥과 구덩이 사이의 빈 공간에도 금동제의 풍탁을 채워놓아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였다. 이 구덩이 안에서만 500여 점의 금동제품들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불단佛壇을 장식하는 장엄구莊嚴具이거나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어서 절에서 사용되던 것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한꺼번에 땅 속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청주 사뇌사
항아리 및
내부 모습



경주 굴불사터
동종과
출토 모습



군위 인각사
불교의식도구와
출토 모습

손잡이향로
靑銅柄香爐
Bronze Incense Burner with Handle
길이 40.2cm

부처님의 세상을 종소리로 열다....

풍탁風鐸은 일반적으로 사찰 건물의 추녀 밑이나 석탑의 지붕돌屋蓋 아래에 매달아 장식했던 장엄구이다. 풍탁 안에 매달린 얇은 풍탁판風鐸舌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맑고 청정한 소리는 중생들을 깨우치는 진리의 소리를 상징하며 경내境內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든다.

풍탁은 또한 건축물의 부재뿐만 아니라 법당 내부의 장엄구로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은사터 동탑 사리기의 천개 天蓋장식에 매달린 풍탁이나 일본 정창원의 번幡에 매다는 장식으로 사용된 금동진탁金銅鎚鐸은 이를 증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상징적 의장意匠을 법당 내부의 부처를 모신 불단 장엄에서 차용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풍탁
金銅風鐸
Gilt-bronze Wind Bells
길이 23.4cm



풍탁판
金銅風鐸舌
Gilt-bronze Wind Bell Plates
너비 18.7cm



풍탁
金銅風鐸
Gilt-bronze Wind Bells
길이 23.5cm

찬란한 빛으로 부처님의 아름다운 감화를 일으키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불국정토佛國淨土는 온갖 보배로 둘러싸이고 아름다운 빛이 퍼져나간다. 창녕 말흘리 유적에서는 500여 점에 달하는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불전을 장식했을 장엄구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은 맞닿아 새긴 금동장식판이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장식구와 자물쇠, 문고리, 마구리장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찬란한 금빛을 발하고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에 감화를 일으켜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권장하는 상징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금동장식판
金銅裝飾板
Gilt-bronze Ornamental Plates



오각형 장식판
金銅五角形裝飾板
Gilt-bronze Ornamental Plate
길이 19.7cm



오각형 장식판
金銅五角形裝飾板
Gilt-bronze Ornamental Plate
길이 18.4cm



꽃 모양 장식판
金銅三花形裝飾板
Gilt-bronze Ornamental Plate
너비 10.6cm



문고리 장식
金銅龍文鎖金
Gilt-bronze Ornaments with Beast Design
너비 11.0cm

이 장식판은 어디에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다양한 모양의 장식판에는 부처 무늬佛像文와 넝쿨 무늬唐草文가 맞
떨려있다. 감은사나 송림사 사리기의 천개, 일본 법륭사 금당의 천개
등의 장식으로 보아 말흘리의 장식판도 천개를 장식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번이나 사리기 천개장식은 보통 금속판
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말흘리 장식판들에는 직물 흔적이 남아있어
직물에 부착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직물에 금속판이나 방울
등으로 장식했던 예로는 일본 법륭사 소장 번幡의 수식垂飾이 있다.

깃발, 번의 모양을 복원해볼까?

직물 흔적이 관찰되는 금동장식판 중 꽃 모양과 오각형, 장방형의 제
작기법이 동일하고, 좌우 폭 및 출토량도 비슷하다. 따라서 3종류의
장식판이 하나의 세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번幡 중에는 꽃 모양 장식판과 같은 금속판을 번두幡頭 선단부에 덧댄
것이 확인되고 있어 꽃 모양을 번두에, 장방형과 오각형은 그 아래에
배치하였다.

참고



참고



송림사 오층전탑 전각모양 사리기



감은사터 동탑 전각모양 사리기



돈황 막고굴 제 148굴 열반경 변상도
'석가모니 관을 나르는 상여'

번의 추정 복원도



왜 불감이라고 할까요?

창녕 말흘리 유적 출토유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식판은 천개장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천개장식은 어디에 붙어있던 것일까?

출토유물의 크기나 수량 등 규모면에서 사리기 장식은 아니며, 사리기와 같은 장식적 의장意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각 모양의 불감佛龕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자물쇠나 문고리, 마구리 장식 등은 '감龕'과 같은 구조물의 부속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불감 자료는 극히 희소하며, 더구나 통일신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비슷한 자료를 구해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경우는 법륜사 육충주자玉蟲廚子나 굴부인주자橘夫人廚子처럼 전각 모양의 비교적 큰 불감들이 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당 또는 건축물 내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불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규모가 작기는 하나 안압지 출토 유물 중에 보이는 「불감제일佛龕第一」명 칠기는 이를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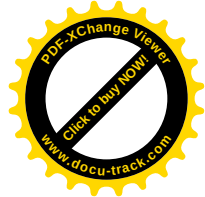
일본 법륜사 육충주자



일본 법륜사 굴부인주자



추정 복원된 불감



Part 1

Discovery of a child's bones at an ancient well site

Archaeologists at a building site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discovered the bones of a child aged between seven and ten at an ancient well site. The bones were found alongside animal bones and pottery shards within the upper archaeological layer of the well site.

Was it an accident?

It is possible that the child, likely from a royal or aristocratic family, might have drowned in the well by accident. In that case, the child would have been removed from the well for the funeral, but then probably put back in the well for burial, with the body covered by a stone tablet. The well would have been used as the child's grave. However, there is very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is explanation. In other words, it is unlikely that the villagers would have taken on the onerous task of emptying and refilling the well just because of the accidental drowning of the aristocratic child.

Or was the child a sacrificial victim?

It is known that state rituals were sometimes performed in which sacrifices were offered to the deities believed to be guarding a well. This child's bones were found mingled with animal bones and other relics, and they were placed atop all other findings, suggesting that the child may have been a sacrificial victim.

Part 2

Treasure jar discovered at the site of an unknown temple

Hwawangsan is the "guardian mountain" of Changnyeong, which rises from the Biseulsan highlan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county. The Malheulli site, located on a southwestern ridge in this highland, contains three dwelling sites, one of which (known as Dwelling Site 1) has produced a remarkable collection of treasures.

Who buried the temple's treasures at this site and why?

The treasures were cleverly disguised by being buried beneath a mass of worthless metal objects, indicating that they were not placed there for religious or ceremonial purposes.

Was there a war or a fire? Or was it to protect them from thieves?

No one knows exactly why these Buddhist treasures were hidden in such a manner, but it seems certain that some extraordinary situation led their owners to take drastic measures. They no doubt hoped to return some day to recover the treasures and reopen the Buddha's wonderful world of truth.